

서울地域 大學生들의 食文化에 대한 意識 및 實態 調査研究

李榮淳 · 林娜暎 · 朴光熙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1994년 9월 30일 접수)

A Survey on Food Culture of College Student in Seoul Area

Young-Soon Lee, Na-Young Lim and Kwang-Hee Park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ome Economics, Kyung Hee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30, 1994)

Abstract

This study was surveyed by 319 male and 336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for food behavior and effect of Western food on food life.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cognition of Korean folk food was higher in female than male students. 2. Eating type of college students appeared that they preferred to cooked rice at breakfast, lunch, and dinner because of a general food type of their family. 3. The favorite food items in college students showed fruits in female and meat in male. 4. Eating out type with family appeared mainly Korean food, because of their preference. 5. The 29% of college students visited fast food restaurants more than 1~2 times per week. 6. In compared to Western food, the Korean food were favored by college students but cooking process of food were complicated. 7. The preference of Korean food against Western food, was mostly higher in male than female. 8. The standard of food choice were taste and convenience of food. 9. Main factor of food habit change appeared convenience of buying easily. 10. The influence of the Western food in our food behavior were easy to buying but not fit our preference. 11. Opinion of students in order to keep Korean food were follows; Various food development, enlargement of consumption market, correct education about Korean food and change of people consciousness through consumer campaign.

I. 서 론

사람의 식사는 매일 되풀이 되며 이러한 식사법(행위)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진다. 그리하여 어떤 지역에서 먹는 것에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양식을 食文化 혹은 먹거리문화(먹을거리의 준말로서 '사람이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의 총칭'이란 의미의 순수한 우리말)라 한다. 식문화는 자연적 환경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환경에 대응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그 시대의 자연 및 사회환경을 반영하며, 인간의 생존과 한 민족의 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우리의 식문화는 36년간의 일본침략에 의해 잠정적 형태로 형성된 倭來食文化와 6.25 사변을 통해 미국의 구호물품으로서의 剩餘農産物이 들어옴으로써 外來食品의 導入에 의한 서구화등, 60년대의 경제성장에 따른

쌀에 보리 혹은 옥수수 등의 잡곡에 의한 混食과 밀가루를 이용한 粉食獎勵政策에 의한 새로운 식품의 형태를 형성시켰다. 또한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乳製品, 加工食品 및 清涼飲料의 개발 등은 오랫동안 지켜 온 식습관과 새로운 식생활양식이 서로 혼합되는 양상 내지 그 전환점이 되었고, 이로 인한 식품의 수용은 여러가지 요소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 시대의 연령층에 의해 새로운 식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傳統食生活은 반세기동안에 이러한 요소에 의하여 서서히 서구화되었고, 또한 8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에 의해 바람직한 가정의 식형태는 외식산업과 가공식품들에 의해 현저하게 바뀌어졌다^{16,18)}.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식문화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는 지역, 소득수준, 가족형태, 어머니의 영향, 사회적

*본 연구는 1994년도 경희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한 것임.

환경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식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크게 ‘국제화’, ‘정보화’, ‘외부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식생활에 맞는 식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과, 우리의 식문화를 올바르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身土不二’라는 인체생리적 측면, 우리의 농수산물을 애용하여 농민경제를 살린다는 경제적 측면 및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성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

근래 대학생들에 의해 우리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개발하려는 경향은 있으나 조리의 복잡성과 편의성을 선호하여 보다 편리한 인스턴트식품과 외래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음식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는 시기에 낮은 외식비에 의한 선택과 영양지식의 부족 상태에서 식품의 선택은 나쁜 식습관을 형성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12,25)}. 또한 대학생들의 외식실태연구에서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음식을 선정할 때 맛과 가격 및 기호도가 크게 작용되었으며, 이러한 외식은 음식종류의 제한성과 간편성 및 편의성에 있다¹²⁾고 보고되었다.

대학생의 식습관은 규정된 식탁문화(가정식탁문화)에서 자유식탁문화로 전환되는 시기의 연령으로 규칙적인 식생활에서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과거세대의 식습관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식품에 의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라는 보고가 있다⁸⁾. 禹등은¹⁵⁾ 최근은 貧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아침缺食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식문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학생의 식문화를 그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서울지역 대학생의 식문화 실태를 알아봄으로서 올바른 식문화형성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 이후 계속될 식문화 연구의 자료를 얻으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1994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 지역에 있는 14개대학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학교당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기록하게 하였고, 불완전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655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설문지는 외국음식이 대학생의 식생활에 미치는

과급력과 대학생의 식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는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1」, 「설문2」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설문1」은 경희대학교 남·여학생 각각 30명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알고 있는 음식명을 예비조사하여 그 중 많이 알고 있는 주식류 40가지, 부식류 70가지, 병과류 14가지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인식정도 조사에서 조사방법의 평가기준으로 재료와 조리법을 ‘안다’ 4점, ‘자주 먹는다’ 3점, ‘한·두번 먹어 본 적이 있다’ 2점, ‘들어 본 적이 있다’ 1점, ‘들어 본 적이 없다’ 0점으로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설문2」는 기존의 문헌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들은 일상식형태, 식품에 대한 기호도, 외식의 형태, 전통음식과 외국음식에 대한 선호도 및 장·단점, 자신의 식습관의 변천요인, 식품문화의 현실과 올바른 먹거리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도서관, 학생회관, 강의실등에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와 직접 면담 및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작성된 설문지에 기록하게 하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설문지는 성별 및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설문지에 대한 자료 처리는 SAS를 사용하였다. 「설문1」과 「설문2」에서 외국음식과 우리음식의 선호도,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 및 수입개방에 의한 외국과 우리먹거리의 과급력은 ANOVA에 의해 검증하였다. 그 외의 문항은 χ^2 -test로 검증하였다. 이들의 상관성은 Pearson's 상관관계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21,22)}.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총 655명 중 남학생 319명(48.7%), 여학생이 336명(51.3%)이었고, 그 중 남학생 1군[19~21세: 116명(17.9%)], 2군[22~24세: 120명(18.3%)], 3군[25~27세 이상: 82명(12.5%)], 여학생 1군[19~20세: 94명(14.3%)], 2군[21~22세: 125명(19.1%)], 3군[23~25세: 117명(17.9%)]이었다.

2.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도

Table 2에 대학생들이 현재 향토음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접하고 있는 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등¹⁰⁾의 남녀대학생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지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령군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과류에서는 주·부식류보다 낮은 인식도로 나타났다.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은 연령군과 남녀간에 유의성이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3. 대학생들의 식사형태

Table 3은 대학생들의 식사형태를 나타내었다. 아침 식사는 주로 밥류(473명, 72.2%), 빵류(60명, 9.2%)이었다. 그러나,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대학생은 103 (15.7%)으로 나타났는데, 점심,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대학생 중 여학생(69명: 20.5%)이 남학생(34명: 10.7%)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다($p < 0.05$).

Table 1.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N(%)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이상	계
남	49 (15.4)	43 (13.5)	24 (7.5)	30 (9.4)	40 (12.5)	51 (16.0)	44 (13.8)	20 (6.3)	18 (5.6)	319 (100.0)
여	31 (9.2)	63 (18.8)	62 (18.4)	63 (18.8)	75 (22.3)	30 (8.9)	12 (3.6)	0 (0.0)	0 (0.0)	336 (100.0)
계	80 (12.2)	109 (16.6)	86 (13.1)	93 (14.1)	115 (17.5)	81 (12.3)	56 (8.5)	20 (3.0)	18 (2.7)	655 (100.0)

Table 2. 향토음식 평가에 대한 인식도

N(%)

	남 자			여 자		
	1군	2군	3군	1군	2군	3군
주 식 류	51.0±1.6*	55.6±1.8	59.8±2.1	59.1±1.9	63.1±1.3	63.4±1.6
부 식 류	62.6±2.4	71.7±2.5	76.8±3.4	72.1±3.0	80.8±2.1	81.4±2.5
병 과 류	22.8±0.7	24.9±0.9	25.7±1.0	26.3±0.8	28.8±0.7	29.4±0.8

*평균±표준오차

Table 3. 대학생들의 식사형태

N(%)

	아 침 식 사			점 심 식 사			저 녁 식 사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밥 류	258 (80.9)	215 (64.0)	473 (72.2)	258 (80.9)	201 (59.8)	459 (70.9)	305 (95.6)	300 (89.3)	605 (92.4)
빵 류	21 (6.6)	39 (11.6)	60 (9.2)	12 (3.8)	34 (10.1)	46 (7.0)	3 (0.9)	12 (3.6)	15 (2.3)
면 류	0 (0.0)	0 (0.0)	0 (0.0)	45 (14.1)	97 (28.9)	142 (21.7)	5 (1.6)	5 (1.5)	10 (1.5)
기 타	6 (1.9)	13 (3.9)	19 (2.9)	2 (0.6)	3 (0.9)	5 (0.8)	3 (0.9)	10 (3.0)	13 (2.0)
먹지 않는다	34 (10.7)	69 (20.5)	103 (15.7)	2 (0.6)	1 (0.3)	3 (0.5)	3 (0.9)	9 (2.7)	12 (1.8)
	319 (100.0)	336 (100.0)	655 (100.0)	319 (100.0)	336 (100.0)	655 (100.0)	319 (100.0)	336 (100.0)	655 (100.0)

$\chi^2=21.050$ DF=2 $p=0.0000$ $\chi^2=36.221$ DF=2 $p=0.0000$ $\chi^2=5.416$ DF=1 $p=0.020$

$p < 0.05$

점심식사의 형태는 밥류(459명: 70.9%), 면류(142명: 21.7%), 빵류(46명: 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점심식사를 하지 않은 대학생(3명, 0.5%)은 아침,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적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면류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저녁식사도 대체로 밥류(605명: 92.4%)로 나타났고,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대학생(12명: 1.8%)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류¹⁴⁾의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행동에 대한 조사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는 대학생에 있어서 대체로 밥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이유로는 '집안의 일반적인 식사형태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대학생이 남학생 135명(52.3%), 여학생 128(59.5%)으로 가장 많았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남학생은 '귀찮아서' 15명(44.1%),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 9명(26.5%)으로, 여학생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 38명(15.1%), '귀찮아서' 21명(30.4%)로 나타났다.

저녁식사 선택의 이유는 '집안의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이 남학생 124명(38.9%), 여학생 154명(45.8%)이고, '속이 든든하기 때문'이 남학생 69명(21.6%), 여학생 50명(14.9%)이며,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기호에 맞기 때문에' 50명(15.7%), 여학생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46명(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류

Table 4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류를 조사한 것으로 남학생이 육류 148명(46.4%), 채소류 45명(14.1%), 과일류 38명(11.9%), 여학생이 과일류 108명(32.1%), 육류 77명(22.9%), 채소류 43명(12.8%)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녀대학생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Table 4.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류 N(%)

	남	녀	계
육 류	148 (46.4)	77 (22.9)	225 (34.3)
가금류	6 (1.9)	5 (1.5)	11 (1.7)
어 류	20 (6.3)	38 (11.3)	58 (8.9)
곡 류	29 (9.1)	16 (4.8)	45 (6.9)
면 류	28 (8.8)	42 (12.5)	70 (10.7)
채소류	45 (14.1)	43 (12.8)	88 (13.4)
과일류	38 (11.9)	108 (32.1)	146 (22.3)
기 타	5 (1.6)	7 (2.1)	12 (1.8)
	319(100.0)	336(100.0)	655(100.0)

$\chi^2=67.931$ DF=6 $p=0.000$

5. 외식의 형태

가족과 함께 외식할 때 선택하는 식사형태는 한식이 남학생 222명(69.6%), 여학생 232명(69.0%)이고, 양식이 남학생 32명(10.0%), 여학생 46명(13.7%), 일식이 남학생 8명(2.5%), 여학생 14명(4.2%), 중국식이 남학생 33명(10.4%), 여학생 30명(8.9%), 기타가 남학생 24명(7.5%), 여학생 14명(4.2%)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 등²⁾, 안³⁾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가족과 함께 외식시 식사선택의 이유로는 '가족의 기호에 따른다'는 것이 남학생 222명(69.6%), 여학생 257명(76.5%),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가 남학생 43명(13.5%), 여학생 30명(8.9%),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기 때문에'가 남학생 16명(5.0%), 여학생 23명(6.9%), '분위기가 좋아서'가 남학생 10명(3.1%), 여학생 12명(3.6%),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가 남학생 12명(3.8%), 여학생 4명(1.2%), '기타'가 남학생 16명(5.0%), 여학생 9명(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기 때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선호한 것은 가족과 함께 외식할 때 주로 먹는 식사에서 양식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이들 조사에서는 남녀간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Table 5. 가족 외식시 이용 음식점 종류 빈도(%)

종 류	남	녀	계
한 식	222 (33.9)	232 (35.5)	452
양 식	32 (4.9)	46 (7.0)	78
중국식	33 (5.0)	30 (4.6)	63
일 식	8 (1.2)	14 (2.1)	22
기 타	24 (3.7)	14 (2.1)	38
	319 (48.7)	336 (51.3)	6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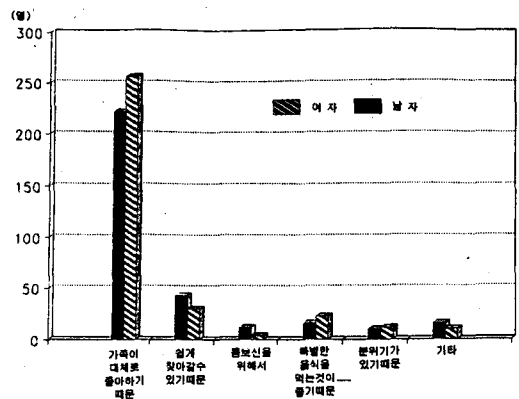


Fig. 1. 가족과 외식시 식사 선택의 이유

($p < 0.05$).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 주로 찾는 식사형태에서 한식은 남자 242명(75.9%), 여학생 179명(53.3%), 그 다음으로는 여학생의 경우 양식 81명(24.1%), 기타 54명(16.1%)의 순으로, 남학생은 중국식 35명(10.1%)의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기타에서 패스트푸드나 분식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간의 유의성이 나타났($p < 0.05$).

한식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가 남학생 129명(40.4%), 여학생 128명(38.1%), '기호에 맞기 때문에'가 남학생 119명(37.3%), 여학생 103명(30.7%),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가 남학생 16명(5.0%), 여학생 51명(15.2%)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답하였다. 연령군간의 비교에서 남학생 1군은 50명(43.1%)이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라는 대답하였고, 2군 중의 51명(42.2%)과 3군 중의 38명(46.3%)은 '기호에 맞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남학생의 경우는 연령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여졌다. 여학생의 경우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군 41명(43.6%), 2군 48명(38.4%), 3군 39명(33.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보여지지 않았다.

6.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도 및 이용실태

Table 6은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도를 조사한 것으로 대학생의 190명(28.6%)이 주 1~2회 이상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였고, 194명(29.2%)이 거의 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남학생(139명: 43.6%)이 여학생(55명: 16.4%)보다 패스트푸드점을 거의 가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²⁰⁾의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이 한²⁰⁾의 조사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남녀간 및 연령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보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패스트푸드 이용자의 이용실태조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동기는 '간단히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가 남학생 37명(40.66%), 여학생 67명(40.4%)이고, '모임장소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가 여학생 32명(19.3%), 남학생 24명(26.4%)이고, '입맛에 맞기 때문에'가 남학생 9명(9.9%), 여학생 27명(16.3%)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녀간 및 연령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여졌다.

7. 외국음식과 우리음식에 대한 주관적 견해

Table 7은 우리음식과 외국음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대학생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리음식의 장점은 '기호에 맞다'가 남학생 208명(65.2%), 여학생 178명(53.0%)이고, '영양이 우수하다'가 남학생 52명(10.3%), 여학생 89명(26.5%)이며, '포만감을 준다'가 남학생 34명(10.6%), 여학생 57명(16.9%)으로 나타났다. 우리음식의 단점에서는 '조리과정이 복잡하다'가 남학생 171명(53.6%), 여학생 264명(78.6%), '기타'가 남학생 67명(21.0%), 여학생 32명(9.5%), '영양이 불균형하다'가 남학생 49명(15.4%), 여학생 23명(6.8%)의 순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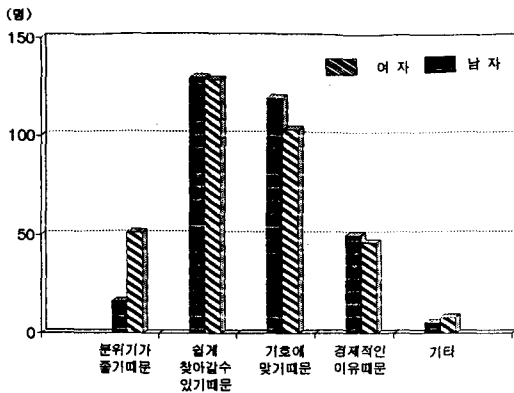


Fig. 2. 친구와 외식시 식사 선택의 이유

Table 6.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빈도

	남 자				여 자				N(%)
	1군	2군	3군	계	1군	2군	3군	계	
거의 매일	6 (5.2)	0 (0.0)	0 (0.0)	6 (1.9)	3 (3.2)	4 (3.2)	1 (0.9)	8 (2.4)	
주 1~2회	25 (21.5)	20 (16.5)	6 (7.3)	51 (16.0)	32 (34.1)	54 (43.2)	39 (33.3)	125 (37.2)	
한달에 한두번	49 (42.2)	42 (34.7)	27 (32.9)	118 (37.0)	49 (52.1)	45 (36.0)	47 (40.2)	141 (41.9)	
거의 안간다	35 (30.2)	55 (45.5)	49 (59.8)	139 (43.6)	8 (8.5)	19 (15.2)	28 (23.9)	55 (16.4)	
기 타	1 (0.9)	4 (3.3)	0 (0.0)	5 (1.5)	2 (2.1)	3 (2.4)	2 (1.7)	7 (2.1)	
	116(100.0)	121(100.0)	82(100.0)	319(100.0)	94(100.0)	125(100.0)	117(100.0)	336(100.0)	
	$\chi^2 = 27.544$ DF=6 $p = 0.000$				$\chi^2 = 14.876$ DF=6 $p = 0.021$				

Table 7. 우리음식과 외국음식에 대한 주관적 견해

N(%)

주관적 견해		우리 음식			외국 음식		
		남	여	계	남	여	계
장 점	영양이 우수하다	52(10.3)	89(26.5)	141(21.6)	34(10.7)	32(9.5)	66(10.1)
	기호에 맞다	208(65.2)	178(53.0)	386(58.9)	12(3.8)	30(8.9)	42(6.4)
	포만감을 준다	34(10.6)	57(16.9)	91(13.9)	9(2.8)	13(3.9)	22(3.3)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5(1.6)	1(0.3)	6(0.9)	130(40.8)	160(47.6)	290(44.3)
	구입이 편하다	6(1.9)	4(1.2)	10(1.5)	77(24.1)	73(21.7)	150(22.9)
	값이 싸다	1(0.3)	1(0.3)	2(0.3)	3(0.9)	1(0.3)	4(0.6)
	기 타	13(4.1)	6(1.8)	19(2.9)	54(16.9)	27(8.1)	81(12.4)
$\chi^2=16.436$ DF=2 $p=0.000$				$\chi^2=21.928$ DF=5 $p=0.001$			
단 점	영양이 불균형하다	49(15.4)	23(6.8)	72(11.0)	42(13.2)	82(24.2)	124(18.9)
	기호에 맞지 않는다	2(0.6)	0(0.0)	2(0.3)	150(47.0)	109(32.5)	259(39.5)
	포만감을 주지 않는다	3(0.9)	1(0.3)	4(0.6)	35(11.0)	29(8.6)	64(9.8)
	조리과정이 복잡하다	171(53.6)	264(78.6)	435(66.4)	6(1.9)	8(2.4)	14(2.1)
	구입이 불편하다	15(4.7)	12(3.6)	27(4.1)	7(2.2)	9(2.7)	16(2.5)
	값이 비싸다	12(3.8)	4(1.2)	16(2.5)	56(17.5)	77(23.0)	133(20.3)
	기 타	67(21.0)	32(9.5)	99(15.1)	23(7.2)	22(6.6)	45(6.9)
$\chi^2=44.773$ DF=2 $p=0.000$				$\chi^2=23.141$ DF=4 $p=0.000$			

타났다. 우리음식의 장·단점은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외국음식의 장점은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가 남학생 130명(40.8%), 여학생 160명(47.6%)이고, '구입이 편하다'가 남학생 77명(24.1%), 여학생 73명(21.7%)이고, '영양이 우수하다'가 남학생 34명(10.7%), 여학생 32명(9.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음식의 단점에서는 '기호에 맞지 않는다'가 남학생 150명(47.0%), 여학생 109명(32.5%), '값이 비싸다'가 남학생 56명(17.5%), 여학생 77명(23.0%), '영양이 불균형하다'가 남학생 42명(13.2%), 여학생 82명(2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음식의 장·단점은 남녀간 및 연령군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우리음식에서 영양과 맛에 관한 사항이 장점으로 나타난 것과 '조리과정이 복잡하다'의 단점은 이 등¹¹⁾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주관적 의견과 일치함을 나타내었다. 외국음식과 우리음식을 비교한 결과 장점으로 외국음식은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구입이 편하다'이고, 우리음식은 '영양이 우수하다', '기호에 맞다'를 선택했다. 단점에서는 우리음식은 '조리과정이 복잡하다', 외국음식은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선택했다. 여기서 외국음식의 장점인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와 우리 음식의 단점인 '조리과정이 복잡하다'고 상반된 견해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음식의 조리과정의

Table 8. 외국음식에 대한 우리음식의 선호도

	1군	2군	3군
남	54.2±3.5*	61.7±2.9	54.9±4.9
여	48.5±3.3	59.0±2.5	54.2±2.9

*평균±표준오차

간편화와 과학화 및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개선한다면 우리음식이 외국음식에 비해 영양적, 기호적, 조리적인 면에서 능가할 것으로 사려된다.

8. 우리음식과 외국음식의 선호도

Table 8은 외국음식과 우리음식에 대하여 선호하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음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 '자신의 기호나 체질에 맞기 때문에'가 남학생 276명(86.5%), 여학생 269명(80.1%)으로, 외국음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 '우리것 외에 다양한 음식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남학생 49명(49.5%), 여학생 63명(60.0%)으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우리음식의 새로운 조리개발의 신속화 및 다양화와 간편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려된다.

9. 자신의 음식 선택 기준

자신의 음식 선택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Table 9. 자신의 음식선택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 N(%)

	1군	2군	3군	계
외관이 먹음직스러워야 한다	11 (7.7)	13 (5.3)	14 (7.0)	38 (5.8)
영양가가 우수해야 한다	24 (10.9)	59 (24.0)	36 (18.1)	119 (18.2)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22 (10.2)	219 (8.5)	9 (4.6)	52 (7.9)
식사소요시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5 (2.0)	8 (3.3)	3 (1.5)	16 (2.4)
구입 혹은 먹기가 간편해야 한다	25 (11.3)	22 (8.9)	18 (9.0)	65 (10.0)
맛있어야 한다	113 (53.3)	113 (45.9)	109 (54.8)	335 (51.2)
식사장소의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	5 (2.3)	3 (1.2)	4 (2.0)	12 (1.8)
기 타	5 (2.3)	7 (2.9)	6 (3.0)	18 (2.8)
	210(100.0)	246(100.0)	199(100.0)	655(100.0)
$\chi^2=18.654$ DF=8 $p=0.017$				

Table 10. 식습관의 변화 요인 N(%)

	1군	2군	3군	계
가족 또는 친구들의 영향이 크다	53 (25.4)	55 (22.5)	48 (24.1)	156 (23.8)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	102 (48.8)	104 (42.2)	55 (27.6)	261 (39.9)
대중 매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12 (5.9)	4 (1.6)	10 (5.0)	26 (4.0)
건강이나 체형 관리를 위해	17 (8.3)	22 (8.9)	30 (15.1)	69 (10.5)
기 타	24 (11.6)	61 (24.8)	56 (28.2)	143 (21.8)
	210(100.0)	246(100.0)	199(100.0)	655(100.0)
$\chi^2=30.197$ DF=8 $p=0.000$				

것으로 대학생의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Table 9). 남녀 1군 113명(53.3%), 2군 113명(45.9%), 3군 109명(54.8%) 이 음식의 선택기준으로 ‘맛있어야 한다’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군이 ‘구입 혹은 먹기가 간편해야 한다’로 25명(11.3%), ‘영양가가 우수해야 한다’가 2군에서 59명(24.0%), 3군에서 36명(18.1%)로 응답해 연령군간의 유의적인 차가 나타났다($p<0.05$).

10. 식습관의 변화요인

Table 10은 식습관의 변화요인에서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사람이 1군 102명(48.8%), 2군 104명(42.2%), 3군 55명(27.6%)이었고, ‘가족 또는 친구들의 영향이 크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군 53명(25.4%), 2군 55명(22.5%)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2군 61명(24.8%), 3군 56명(28.2%)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성장하면서 식습관의 변화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한 영향보다는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식습관의 변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스턴트 식품 및 외식산업의 발달 등에 의한 생활의 단순화로 사려되어 올바른 식사에 대한

개념과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11. 우리식품에 대한 외국식품의 파급력

Table 11은 외국식품이 우리식품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 파급력이 크다고 답한 사람의 이유는 ‘외국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 남학생 122명(40.5%), 여학생 147명(44.7%), ‘현재 전 반적인 우리문화가 서구화되어가는 추세’가 남학생 87명(28.9%), 여학생 77명(23.4%), ‘대중매체의 영향’이 남학생 47명(15.6%), 여학생 77명(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보여진다($p<0.05$).

파급력이 적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이유로는 ‘우리의 기호나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남학생 33명(45.2%), 여학생 17명(37.0%)으로 나타났다.

우리식품에 대한 외국식품의 파급력이 크고 적은 이유는 남녀간, 연령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12. 우리식품을 지키기 위한 견해

우리식품을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한

Table 11. 외국먹거리의 파급력이 크고 작은 이유

	남			여			계	N(%)
	1군	2군	3군	1군	2군	3군		
파급력이 큰 이유	47 (43.5)	55 (47.0)	20 (26.3)	122 (40.5)	45 (49.4)	56 (44.8)	46 (40.7)	147 (44.7)
외국 먹거리를 주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	14 (13.0)	20 (17.1)	13 (17.1)	47 (15.6)	16 (17.6)	30 (24.0)	31 (27.4)	77 (23.4)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	14 (13.0)	3 (2.6)	14 (18.4)	31 (10.3)	7 (7.7)	6 (4.8)	7 (6.2)	20 (6.1)
심리적으로 외국음식이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	24 (22.2)	37 (31.6)	26 (34.2)	87 (28.9)	22 (24.2)	30 (24.0)	25 (22.1)	77 (23.4)
현재 전반적인 우리의 문화가 서구화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	9 (8.3)	3 (1.7)	3 (4.0)	14 (4.7)	1 (1.1)	3 (2.4)	4 (3.6)	8 (2.4)
기 타	108(100.0)	117(100.0)	76(100.0)	301(100.0)	91(100.0)	125(100.0)	113(100.0)	329(100.0)
$\chi^2 = 20.650$ DF=6 $p = 0.0020$ N.S								
파급력이 적은 이유	1 (2.4)	2 (10.5)	1 (8.3)	4 (5.5)	4 (23.5)	4 (25.0)	2 (15.4)	10 (21.7)
외국먹거리를 주변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	4 (9.5)	2 (10.5)	3 (25.0)	9 (12.3)	2 (11.8)	4 (25.0)	4 (30.8)	10 (21.7)
아직까지는 일반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	15 (35.7)	11 (58.0)	7 (58.4)	33 (45.2)	7 (41.2)	5 (31.3)	5 (38.4)	17 (37.0)
외국먹거리는 우리의 기호나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	2 (4.8)	2 (10.5)	0 (0.0)	4 (5.5)	3 (17.6)	2 (12.5)	2 (15.4)	7 (15.2)
아직까지도 우리먹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	20 (47.6)	2 (10.5)	1 (8.3)	23 (31.5)	1 (5.9)	1 (6.2)	0 (0.0)	2 (4.4)
기 타	42(100.0)	19(100.0)	12(100.0)	73(100.0)	17(100.0)	16(100.0)	13(100.0)	46(100.0)
$\chi^2 = 30.939$ DF=4 $p = 0.000$ N.S								

N.S: Not Significant

것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상품개발 등 소비 시장의 확대’로 대답한 사람은 남학생 156명(25.2%), 여학생 162명(24.7%)이고,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남학생 67명(10.2%), 여학생 60명(9.2%)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소비자운동을 통한 국민의식 변화’로 37명(5.6%), 여학생은 ‘TV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한 선전’으로 44명(6.7%)이 응답하였다.

13.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도,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도, 우리음식과 외국음식의 선호도, 우리음식에 대한 외국음식의 파급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도 및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도와 우리음식과 외국음식의 선호도는 우리음식에 대한 외국음식의 파급력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 0.05$).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 경우, 패스트푸드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음식에 비해 우리음식을 더 선호하는 경우 우리음식에 대한 외국음식의 파급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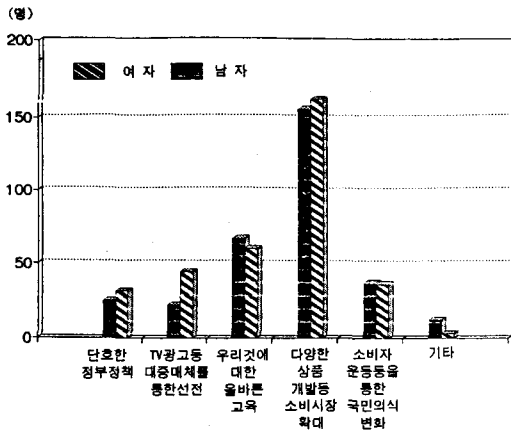


Fig. 3. 우리 식문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

Table 12.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도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도	우리음식과 외국음식의 선호도	우리음식에 대한 외국음식의 파급력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도	1.00000 ($p=0.0000$)	-0.03590 ($p=0.3590$)	-0.02278 ($p=0.5605$)	0.12716 ($p=0.0011$)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도		1.00000 ($p=0.0000$)	-0.00262 ($p=0.9467$)	0.08434 ($p=0.0309$)
우리음식과 외국음식의 선호도			1.00000 ($p=0.0000$)	0.16913 ($p=0.0001$)
우리음식에 대한 외국음식의 파급력				1.00000 ($p=0.0000$)

IV. 요약 및 결론

1.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들의 식사형태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로 밥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집안의 일반적인 식사형태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식품류로 여학생은 과일류, 남학생은 육류를 선호하였다.
4. 외식할 때 선택하는 식사형태는 주로 한식으로 나타났다.
5. 패스트푸드의 이용도는 주 1~2회 이상 이용하였다(29%).
6. 우리음식과 외국음식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서 장점으로 ‘우리음식은 기호에 맞다’, ‘외국음식은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로, 단점에서는 ‘우리음식은 조리과정이 복잡하다’, ‘외국음식은 기호에 맞지 않다’가 가장 높은 견해로 나타나 장·단점에서 외국음식과 우리음식의 상반된 견해로 나타났다.
7. 외국음식에 대한 우리음식의 선호도의 경향은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리음식을 선호하였다.
8. 자신의 음식선택 기준은 맛과 간편성을 따른 경향을 보였다.
9.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이 식습관 변화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10. 외국음식이 우리식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는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크다는 사고와 우리의 기호나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급력이 적다는 사고로 응답하였다.
11. 우리식품을 지키기 위한 견해로 다양한 상품개발 등 소비시장 확대,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 소비자운동 등을 통한 국민의식의 변화의 순이었다. 우리의 음식이 변모해가는 식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리형태의 개발 및 다양화와 간편화가 요구되어지며, 올바른 식상에 대한 개념과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노정미, 유영상.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식실태 및 기호도 조사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7(2): 65, 1989.
2. 노정미, 유영상.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식실태 및 기호도 조사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27(4): 51, 1989.
3. 김정현, 이민준, 양일선, 문수재. 한국인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7(1): 1, 1992.
4. 김화영. 대학생의 영양식사와 식습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7: 178, 1984.
5. 안숙자.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4(4): 383, 1989.
6. 임현숙. 일부지역여대생들의 식생활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18: 47, 1980.
7. 장유경, 오은주, 선영실. 대학생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 43, 1988.
8. 정영진. 대학생의 기호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7(1): 10, 1984.
9. 이철호, 주용재, 안기옥, 류시생. 지난 일세기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영양 상태의 추이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4): 397, 1988.
10. 이경애, 장영애, 김우경. 남녀대학생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지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I. 지식 및 섭취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3): 187, 1993.
11. 이경애, 장영애, 김우경. 남녀대학생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지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II.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4): 183, 1993.
12. 모수미, 김창임, 이심열, 윤은영, 이경신, 최경숙.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여의도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1(3): 295, 1986.
13. 모수미, 전미정, 백수경, 이수경.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2차 실태조사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4(1): 83, 1989.
14. 류은순.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 행동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8(1): 43, 1993.
15. 우미경, 현대선, 이심열, 모수미. 일부 도시직업인 및 학생의 아침식사를 중심으로 한 식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103, 1986.
16. 모수미. 한국의식문화의 발달과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2): 181, 1994.
17. 오세영. 생물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본 한국인의 식생활행동: 지난 50여년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8(4): 373, 1993.
18. 광동경. 패스트푸드 업체의 급식경영실태 및 발전방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2): 189, 1994.
19. 이영미, 이기완. 여대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와 섭취행동. 가정학회지 32(2): 193, 1994.
20. 한명주.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2): 91, 1992.
21. 조인호: SAS 강좌와 통계컨설팅. 제일경제연구소, 1993.
22. Jane T. Helwig, SAS Introductory Guide, 3rd ed., North Carolina, SAS Institute Inc., 1985.
23. 안숙자. 서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1(1), 1985.